

# ‘3단계’ 시각차 극과극... “지금도 충분” vs “이미 늦었다”

### 정부, 내년 1월3일까지 2.5단계 유지 결정 “인력 확충·의료체계 역량 유지 가능” 판단 의료계, 반대 의견...“짧은 3단계라도 필요” “정부,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도 있는지 의문”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한 정부가 결국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등 현재의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다시 연기했는데,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능력이 안 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등 조치는 당초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

는 ‘의료체계 역량 유지 가능’ 등의 이유를 언급하며 당분간 3단계 격상 대신 2.5단계 등 현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중심 집단 없이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해 앞으로의 환자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고,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환자 증가세가 꺾이는 특별한 반전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는 현재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고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 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다”는 정부 판단과 달리 의료계에서는 의료진 및 병상 부족 등의 고충을 호소하는 등 정반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 관계자들) 의료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3단계 격상은 이미 늦었지만, 짧게라도 단계를 올려야 직장생활 등 일상 속에서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천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동

일집단 격리(코호트)를 하는 요양병원에서 대기하다 사망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게 다 병상과 의료진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그 안에서 계속 연쇄 감염으로 환자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의료체계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현재 굉장한 과부하가 걸려 있고, 이 상태로는 오래 못 버틴다”며 “짧게라도 3단계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해야 앞으로 의료체계도 재정비 할 수 있고 백신이 도입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나라 거리두기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 추가적인 의

견을 내놓는 것이 무의미해 보인다”며 “현재 정책 중 일부는 3단계 이상의 조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3단계 격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3단계 격상 자체에 대해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를 가정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 격상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만큼 정부도 그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이미 코로나19 확산이 꽤 진행됐는데, 방역 조치가 적용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신봉우기자



입국하는 해외발 입국자들 영국발 입국 확진자로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운데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발 입국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 집단감염지 방문 숨기다 코로나 확진된 교인...고발 검토

광양지역 40대 모자가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모자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의 선교사양성센터에 다녀 온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적발돼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지역 H교회 교인인 여성 A씨와 아들 B군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모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의 선교사양성센터를 지난 11~12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모임 당시 참석자들의 휴대전화를 끄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광양의 H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당국이 H교회 교인 48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안내했으나 A씨 가족 4명은 검사를 기피했다. A씨가 경북 상주의 선교사양성센터

를 방문했다는 제보를 받은 방역당국이 지난 27일 경찰과 함께 거주지를 방문했을 때 A씨 가족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있었다. 검사 결과 A씨 가족 4명 중 남편과 딸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날까지 H교회에서는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 광주 요양원→사우나→요양시설 ‘연쇄감염’

### 방역당국 위험도 평가·직원·환자 전수검사



광주지역 요양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우나를 거쳐 다른 요양시설로 전파돼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됐다. 이 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은 지난 2일 직원에 이어 두번째이다. 28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광주 북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광주1041번)와 입원환자(광주1048번)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요양시설 5층을 담당하고 있는 1041번 확진자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2명의 확진자가 나온 요양시설 5층에 대해 동일집단 격리 조치하는 한편 시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1041번 확진자가 지난 23일과 25일 근무한 점을 토대로 입원환자와 직원 400여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시설 전체 동일집단 격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1041번의 감염경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북구의 에버그린요양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버그린요양원에서는 지난 22일 요양보호사인 885번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885번이 지인들과 함께 지난 20일 이전 한 사우나를 이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사우나 모임에는 요양시설 확진자인 1041번의 가족(1016번)이 있었으며 이들은 최근 또다른 가족 모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에버그린요양원에서는 885번 확진자 이후 총 56명(사망 2명)이 추가 감염됐다. 이중 사우나 모임 감염자는 15명이다. 광주1041번이 근무하고 있는 요양시설은 지난 2일에도 직원(광주755번)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전수검사가 실시됐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우나와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위험도와 전수검사를 통해 시설 전체에 대한 동일집단 격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